

조선조 숙종대 혼전조성과 그 특징에 관한 연구

- 창경궁 문정전을 중심으로 -

신 지 혜*
(경기대학교 박사과정)

주제어 : 숙종, 혼전(魂殿), 문정전, 계상당(啓祥堂), 편전, 창경궁, 숭문당

1. 서론

본 연구는 조선시대 숙종대를 한정하여 이 시기에 혼전 조성 과정과 특징을 살펴보고, 혼전으로 주로 사용된 창경궁 문정전을 중심으로 혼전사용에 따른 궁궐 전각 사용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 의미를 두었다. 궁궐 건축 연구는 임진왜란 이후 광해군과 인조대에 궁궐의 조성을 다룬 연구를 제외하면 18~19세기 영·정조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연구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형성된 공백이다. 숙종대는 이러한 공백기라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숙종대 궁궐의 전모를 알 수는 없으나, 혼전으로 사용된 전각을 중심으로 일부 공간이나마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1. 혼전의 정의

혼전은 국상¹⁾이 발생하면 산릉에 재궁²⁾을

봉안하고, 신주³⁾를 궁궐로 모셔와 종묘에 부묘⁴⁾될 때까지 안치하여 삼년상 혹은 기년상(基年喪)을 치르는 공간을 말한다.⁵⁾ 혼전은 조선왕조 긴 역사동안 반복해서 일어나는 국상에 일부로 궁궐에 조영되었으며, 기존 전각을 전용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징은 궁궐 전각의 사용상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1-2. 숙종대를 중심으로 시기 한정

조선조 숙종은 1674년~1720년까지 46년 동안 재위하였다. 이 시기를 한정하여 연구하는 이유는 이례적인 시대 상황을 갖고 있기 때문

2) 재궁(梓宮): 국장 시 임금·왕후의 시신을 담은 관이다. 왕세자 혹은 세자빈의 경우는 梓室이라 표현하고 격을 달리한다.

3) 신주(神主): 죽은 사람의 넋을 담은 위패로 왕이나 왕후의 넋을 담은 경우 우주(虞主)라고도 한다. 뽕나무로 만들며 길이는 1자이다.

4) 부묘(祔廟): 삼년상이 지난 뒤에 종묘에 위패를 모시는 행위

5) 혼전에 대한 정의는 윤정의 논문을 통해 정리될 수 있다. 윤정, 「조선시대 혼전운영에 대한 기초적 정리」, 『규장각』 제28호, pp.77-107, 2005년 12월

* 교신저자, 이메일: heywise@nate.com

1) 국상(國喪): 조선시대 나라에서 왕·왕비·왕세자·세자빈·왕세손·왕세손비 등의 장례를 치루는 상례(喪禮)를 말한다.

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피폐해진 사회 배경에서 광해군의 폭정을 빌미로,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仁祖)부터 왕위계승 정통성 논란이 있었던 효종(孝宗)까지 조선의 왕권은 약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종(顯宗)의 뒤를 이어 적장자(嫡長子)인 숙종이 왕위에 오른다. 왕권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현종부터 시도되어 숙종 재위기간에 자리를 잡는다. 왕권을 세우기 위한 일환으로 왕실 제례가 정리되고 이에 따른 건축공간이 변화된다. 숙종 재위기간에는 이례적으로 국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46년간의 재위기간 중 6차례의 국상을 치루게 된다. 또한 숙종은 창덕궁과 경덕궁⁶⁾을 자주 이어⁷⁾하며 머물렀고 이에 따라 혼전도 따라 옮겨졌다. 빈번한 이어 행례에서 혼전 설치와 이안⁸⁾ 절차 등이 점차 일정하게 정리되는 과정을 보인다. 따라서 이 시기를 조선후기 혼전 건축공간의 특징을 점차 형성해 가는 시기로 보고 이 기간을 한정하여 연구하는데 의의를 갖는다.

1-3. 연구 방법

연구 자료는 혼전 조성과정을 기록한 각 시기 빈·혼전도감의례를 주 대상으로 하였다. 2장에서는 각 빈·혼전도감의례와 함께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를 바탕으로 혼전의 조성 및 이안 사례를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혼전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 구성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살피고, 시각자료로 「동궐도」와 「동궐도형」을 이용하였다. 시기의 차이가 있어 약간의 어려움이 있으나, 비교적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이용할 수 있었다. 4장에서는 문정전의 혼전 사용에 따른 전각 성격

6) 경덕궁(慶德宮): 경희궁. 연구하는 시기를 숙종대로 한정하고 있어 경희궁을 경덕궁으로 기록한다.

7) 이어(移御): 임금의 거처를 옮김

8) 이안(移安): 신주나 영정 등을 옮겨 모시는 행위
건축역사연구 제19권 3호 통권70호 2010년 6월

변화와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었다.

[표 1] 숙종대 혼전설치과정을 기록한 의례

사료명	시기	소장처
『[仁宣王后]魂殿都監儀軌』	1674	규장각
『[顯宗大王]殯殿都監儀軌』	1674	규장각
『[仁敬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1680	규장각
『[明聖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1683	규장각
『[莊烈王后]魂殿都監儀軌』	1688	파리
『[仁顯王后]魂殿都監儀軌』	1701	규장각

2. 숙종대 혼전 이용 사례

2-1. 혼전 조성 사례

숙종년간에 혼전이 설치된 사례는 총 6건이다. 숙종은 인선왕후(효종비)의 혼전(敬思殿)이 문정전에 설치된 상황에서 왕위에 올랐다. 즉위년에 현종의 혼전이 설치되었으며, 숙종년간 동안 4명의 왕후 국상이 있었다.

숙종대 전반 동안 왕이 창덕궁에 임어(臨御)⁹⁾하는 동안은 창경궁의 편전인 문정전을 혼전으로 사용하였다. 예외 사례는 현종의 혼전(孝敬殿)과 1680년의 인경왕후(숙종비)의 혼전(永昭殿)이었다.



<그림 1> 창경궁 문정전(「동궐도」의 일부)

숙종 즉위년의 경우는 국상이 겹쳐서 일어났기 때문에 문정전을 혼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9) 임어(臨御): 임금이 거처하다.

상황에서 환경전을 대안으로 사용한 사례이다. 숙종6년 인경왕후의 국상은 왕후가 친연두로 인해 창덕궁에 머물지 못하고, 경덕궁에 피접(避接)해 있었던 상황에서 발생하여 인경왕후의 혼전은 경덕궁 계상당(啓祥堂)에 마련되었다.



<그림 2> 경덕궁 계상당(『서궐도안』의 일부,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본)

2-2. 혼전 이안 사례

숙종년간에 임금이 삼년상 중 이어할 경우 혼전을 함께 이안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혼전은 창경궁의 문정전과 경덕궁의 계상당에 옮겨가며 설치되었다.

경덕궁의 계상당으로 혼전을 처음 이안한 것은 현종 즉위년(1659년)이다. 12월에 궁궐의 여러 재변으로 인하여 임금이 창덕궁에서 경덕궁으로 이어하게 된다. 이때 문정전에 설치된 효종의 혼전을 함께 옮겨 경덕궁 계상당에 안치하게 된다. 이로 인해 계상당에 행각을 조성하고 혼전을 이안하게 된다.¹⁰⁾ 이를 시작으로 숙종년간에 여러 차례 혼전 이안이 행해졌으며, 임금이 경덕궁으로 이어할 때 혼전은 계상당으로 정하여 이안하도록 하는 전례가 되었다.

10) 『승정원일기』 현종 즉위년 12월 2일 (무자)
“金壽恒 以禮曹言啓曰 慶德宮移御事 定奪啓下矣 四殿移御吉日時 令日官速爲推擇 而魂殿奉移 當在啓祥堂行閣造成之後 奉移吉日 與四殿移御 同日推擇乎 敢此仰稟 傳曰 一時推擇 可也”

<표 2>는 숙종년간에 혼전의 설치와 이안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이 시기 운영된 혼전에서 영소전(永昭殿)은 가장 자주 이안한다. 영소전은 인경왕후(仁敬王后, 1661~1680: 숙종비)의 혼전이다. 인경왕후가 숙종6년에 경덕궁에서 승하하여, 혼전은 경덕궁에 15개월 동안(기년상) 운영되었다. 이 경우는 임금이 살아있을 때 왕비의 상이 발생한 사례로 기년상을 치르고, 상이 끝난 후에도 종묘에 바로 부묘(祔廟)하지 못한다. 따라서 임금의 부묘가 이루어지는 시기까지 궁궐에 신주를 봉안하여, 경종2년까지 혼전이 유지된다. 혼전이 오래 유지되어 이안의 횟수도 잦으며, 다른 사례에 비해 이안에 대한 논의 기록을 상세히 찾아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안의 과정을 추측해 볼 수 있었다.

이안절차는 예조에서 이안할吉日(吉日)을 정하고,¹¹⁾ 혼전을 옮기기 전에 고유제(告由祭)를 먼저 행한다. 그리고 창덕궁에 도착하면 명정전에서 지영례(祇迎禮)를 행하고, 명정전에 잠시 안치했다가 문정문(正門)을 통해 문정전에 봉안한다. 그리고 나서 봉안 후 봉안제(奉安祭)를 지낸다.¹²⁾

숙종대의 잦은 이어와 함께 이안이 이루어지면서 이안하는 절차를 다듬어간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혼전 운영의 원칙이 점차 갖추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2-3. 혼전 기간 이후 유지된 사례

숙종대에 영소전(永昭殿)과 경녕전(敬寧殿)

11) 『승정원일기』, 숙종 27년 10월 29일 (임오)
“禮曹啓曰 命下矣 招問日官 則來十二月十三日 十七日 十八日 二十五日 二十六日 皆爲吉云 而十三日 十七日 十八日 則雖在返虞之後 虞祭未畢之前 移奉魂殿 有所未安 十七日 權安永昭殿於明政殿 二十五日 移安魂殿於永昭殿所設之處 二十六日 永昭殿 移安於文政殿 則似爲合宜 且二十五日 亦是移御吉日 而於王世子及嬪宮 俱爲吉日云 以此等日 豈爲舉行乎 敢稟 傳曰 依爲之”

12) 『숙종실록』 35권, 27년(1701) 12월 1일(계축)

[표 2] 숙종대 혼전설치와 이안과정

혼전명	대상인물	존치기간	혼전 정전	이안	임금 임어소	입어기간	비고
경사전 敬思殿	인선왕후 (효종비) 1674년 3월 승하	현종15년(1674) 3 월 ~ 숙종 2년 (1676)	문정전		창덕궁	현종15년.3월~숙종1년.05.12	
				경덕궁	경덕궁	숙종1년 5월12~1년11월13일	
				환경전	창덕궁	숙종1년11월13일~6년8월11일	효경전을 문정전으로, 경사전을 환경전으로 이안
효경전 孝敬殿	현종 1674년 8월승하	숙종즉위년(1674) 8월 ~ 숙종 2년 (1676)	환경전		창덕궁	숙종원년8월23일~1년5월12일	인선왕후의 혼전이 문정전에 설치
				경덕궁	경덕궁	숙종1년 5월12~1년11월13일	
				문정전	창덕궁	숙종1년11월13일~6년8월11일	효경전을 문정전으로, 경사전을 환경전으로 이안
☆ 영소전 永昭殿	인경왕후 (숙종비) 1680년11 월	* 혼전기간: 숙종6년(1680)~ 숙종8년 * 이후 종묘 부모 시까지 유지 기 간: 숙종8년~경 종2년(1722)	계상당		창경궁 창덕궁	숙종6년10월19일~17년2월8일	인경왕후가 천연두로 승하하여 경덕궁에서 혼전
				문정전	경덕궁	숙종17년2월8일~18년8월7일	종묘 부모시까지 유지
				계상당	창덕궁 창경궁	숙종18년8월7일~24년9월5일	"
				문정전	경덕궁	숙종24년9월5일~25년4월16일	"
				계상당	창덕궁	숙종25년4월16일~25년 윤7월4일	"
				문정전	경덕궁	숙종27년12월25일~28년12월21	"
				계상당	창덕궁	숙종28년12월21일~33년7월 26일	영소전은 계상당에, 경녕전은 문정전에 지속된다.
			경덕궁		숙종33년7월 26일~34년8월27일	"	
			창덕궁		숙종34년8월27일~38년10월13일	"	
			경덕궁		숙종38년10월13일~41년4월29일	"	
	창덕궁	숙종41년4월29일~44년2월20일	"				
	경덕궁	숙종44년6월8일~					
영모전 永慕殿	명성왕후 (현종비)	숙종9년(1683)~ 숙종12년(1686)	문정전		창덕궁	숙종9년12월12일~15년4월25일	
효사전 孝思殿	장렬왕후 (인조비)	숙종14년(1688)~ 숙종16(1690)	문정전		창덕궁	숙종9년12월12일~15년4월25일	
☆ 경녕전 敬寧殿	인현왕후 (숙종비)	* 혼전기간: 숙종 27년(1701) ~숙종29년(1703) *이후 종묘 부모 시까지 유지 기 간: 숙종29년 (1703) ~경종2년 (1722)	문정전		창덕궁	숙종25년 윤7월4일~27년12월25일	
				계상당	경덕궁	숙종27년12월25일~28년12월21	
				문정전	창덕궁	숙종28년12월21일~33년7월 26일	숙종30년 이후 종묘 부모시까지 유지
					경덕궁	숙종33년7월 26일~34년8월27일	영소전은 계상당에, 경녕전은 문정전에 지속된다.
					창덕궁	숙종34년8월27일~38년10월13일	"
					경덕궁	숙종38년10월13일~41년4월29일	"
					창덕궁	숙종41년4월29일~44년2월20일	"
				경덕궁	숙종44년6월8일~	숙종의 유지에 따라 숙종혼전을 문정전에 설치, 경녕전을 시민당으로 이안	

- 본 표는 『승정원일기』와 『숙종실록』, 해당 빈·혼전도감의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 ☆표는 숙종비의 혼전으로 3년상 이후에도 숙종 부모시까지 유지된 경우이다.

은 기년상으로 치루어져 15개월 동안 혼전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그 기간 이후에도 혼전이 유지된 것을 볼 수 있다.

혼전은 모시는 대상에 따라 존치 기간이 달라진다. 국왕과 대비의 상이 발생한 경우 삼년상을 치르며 27개월 동안 혼전에 조석상식(朝夕常食)을 올리고, 시기마다 우제(虞祭), 졸곡제(卒哭祭), 연제(練祭), 상제(祥祭), 담제(禫祭)를 지낸다.

왕비의 상일 경우는 왕이 살아 있기 때문에 기년상(期年喪)이 되어 15개월만에 담제(禫祭)까지 마치고 혼전에서의 의례 과정도 끝난다. 그러나 왕이 종묘에 부묘되기 전에는 왕비가 종묘에 부묘될 수 없기 때문에 왕비는 왕의 부묘 시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신주를 봉안하는 곳으로 혼전이 계속 궁궐에 유지되었다.¹³⁾

숙종년간에 인경왕후와 인현왕후의 혼전 사용 사례를 통해 이 시기의 혼전과 그 이후 유지 기간 동안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인경왕후는 숙종6년에 승하하여 혼전(영소전)이 마련되었으며, 인현왕후는 숙종27년에 승하하여 혼전(경녕전)이 마련되었다. 영소전의 경우 실제 혼전으로 사용되는 기간은 1680년 11월에 승하하여 15개월이 지난 1682년 3월까지지만, 숙종이 부묘되는 경종2(1722)년까지 유지되었다. 인현왕후의 경녕전 역시 숙종 27(1701)년 8월에 승하하여 15개월이 지난 숙종 1702년 12월까지 실제 혼전으로 사용되며, 경종2년까지 혼전영역은 유지되었다.

영소전은 숙종 6년부터 경종2년까지 약 40년 동안 궁궐에 혼전의 형태를 유지하게 된다. 영소전은 인현왕후 혼전(경녕전)이 설치되는 숙종27년까지 임금의 이어와 함께 이안되는데, 임금의 입어소와 교차하여 궁궐(空闕)에서 운

영되었다. 혼전은 임금의 입어소에서 운영¹⁴⁾하는 반면, 상이 끝난 이후에 유지되는 기간은 궁궐에서 운영한 것이다. 혼전의 경우는 삼년상동안 조석상식과 조석으로 곡(哭)을 행하는 등의 제례가 매일 이어진다. 따라서 임금의 입어소에 설치하고 제례를 관리하지만,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특별히 제례를 할 때를 제외하면 자주 찾지 않으며 궁궐에 넓은 공간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운영방식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숙종27년 인현왕후의 국상이 발생하면서 혼전이 두 곳에서 운영된다. 이때부터 영소전(인경왕후의 혼전)은 계상당에, 경녕전(인현왕후의 혼전)은 문정전에 설치하여 유지하게 된다. 이는 숙종의 국상이 일어나는 경종즉위년에 숙종의 혼전을 문정전에 설치하고, 경녕전을 시민당(時敏堂)으로 옮겨 봉안하는 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¹⁵⁾

결국, 숙종 재위 기간 동안 두 왕후의 국상으로 혼전이 장기간 궁궐에 유지되면서 창경궁의 문정전과 경덕궁의 계상당이 혼전으로 지속되는 현상을 발생한다.

<표 3>는 숙종6년 영소전 설치 이후 숙종대 전반에 걸쳐 문정전과 계상당의 혼전 사용 기간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영소전이 숙종6년부터 궁궐의 혼전 영역을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양궐에 모두 혼전을 두고 있는 시기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용 경향은 혼전이 일시적인 성격에서 상설적인 성격으로 변화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14) 혼전은 임금의 입어소에 설치되지만, 창덕궁에 입어시에는 인접한 궁궐 창경궁 문정전에 설치된다.

15) 『승정원일기』 숙종 46년 6월 13일
 “韓世良 以殯殿都監郎廳 以摠護使意啓曰 魂殿處所 當依大行遺教 定設於文政殿 而敬寧殿 今方奉安 必須先期移安於他所後 方可修理 移安處所 自下不敢擅便 何以爲之 敢稟 傳曰 時敏堂 何如 問于摠護使”

13) 윤정, 「조선시대 혼전운영에 대한 기초적 정리」, 『규장각』 제28호, pp.77-107, 2005. 12

[표 3] 영소전 설치 이후 숙종대 혼전사용기간

기간	문정전	계상당
1680년11월 ~ 1683년12월		永昭殿 (인경왕후)
1683년12월 ~ 1686년 2월	永慕殿 (명성왕후)	永昭殿
1688년 2월 ~ 1691년 2월	효사전 (장렬왕후)	永昭殿
1691년 2월 ~ 1692년 8월	永昭殿	
1692년 8월 ~ 1698년 9월		永昭殿
1698년 9월 ~ 1699년 4월	永昭殿	
1699년 4월 ~ 1701년 8월		永昭殿
1701년 8월 ~ 1701년11월	敬寧殿 (인현왕후)	永昭殿
1701년11월 ~ 1702년12월	永昭殿	敬寧殿
1702년12월 ~ 1720년 6월	敬寧殿	永昭殿

3. 숙종대 혼전 건축공간 특징

3-1. 혼전 조성 과정

혼전을 조성할 때는 혼전도감을 설치하고, 도감 내에 3방(房)을 두었다. 이중 건축 및 수리를 담당하는 곳은 혼전2방에 해당한다. 혼전 2방은 다시 공사 영역에 따라 조성소와 수리소, 별공작으로 구분한다. 조성소는 정전과 신문(神門) 내 수리 조성을 담당하고, 수리소는 어재실 이하 각처 및 수리조성에 모든 곳의 수리와 청소를 담당하고, 별공작은 혼전 모든 공간에 필요한 상탁과 목물을 만든다.¹⁶⁾ 건축을 담당하는 조성소와 수리소의 영역구분은 신문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는 편전의 정문인 차비문을 말한다. 문정전의 경우 문정문을 기준으로 서북쪽에 정전과 곡림청 영역을 주로 조성소에서 담당한다. 문정문밖 동남쪽은 수리소에서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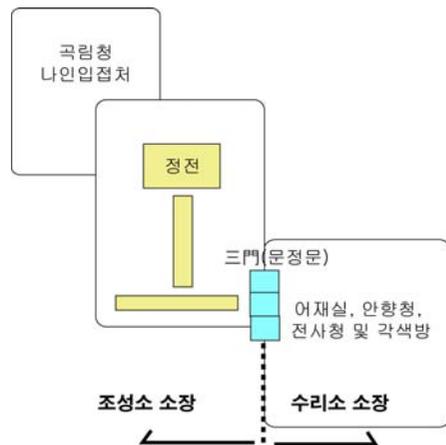
공사의 범위는 단청과 기와공사, 온돌 및 도배, 바닥갈래 및 장막 설치 등이 대부분의 공

사 내용이다.

[표 4] 혼전도감의 소(所)별 건축공간

담당소	해당 건물
조성소 造成所	정영역 정전(문정전), 정전 내 배설물(排設物) 제물진설행각, 건복문과 행각2칸, 수복별감방, 통경문내행각, 정전동편 소대청(召對廳) 3칸, 전정남쪽 행각12칸 동편월랑10칸 수복별감방2칸,
	곡림청영역 통경문(通慶門), 진상문(秦祥門), 집서문(集瑞門), 이명문(離明門)에 생포갑장(生布甲帳) 걸기 / 숭문당(崇文堂) / 함인정(函仁亭) 남쪽마당 5량가
수리소 修理所	어재실, 승화문 외행각7칸, 안향청,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전사청, 별사용원, 수라간, 제물숙설청 당하설리, 주방내관방, 병공방(餅工房), 별사용방, 반감방(飯監房), 주색방(酒色房), 도설리방, 장반설리방, 포장간(沱匠間), 다인각색장, 업가, 床排色房, 蒸色房, 銀器城上房, 庫城上房, 입번중의관방, 입번중실방, 잠봉방, 감찰방

* 본 표는 숙종9년 명성왕후 혼전조성을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나, 숙종년간에는 유사한 형태로 조성되었다.



<그림 3> 혼전 건축 담당소 개념도

16) 『明聖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숙종9년(1683년), 魂殿二房

새롭게 건축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조성소에서 담당하는 함인정 남쪽 마당에 오랑가와, 수리소에서 담당하는 송화문 밖 행각7칸을 조성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점차 새로 짓는 것이 줄어들어, 숙종14년 장렬왕후 국상 이후에는 신조(新造)는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3-2. 혼전 건축공간의 특징

이 시기는 혼전의 영역이 성격별로 분화되며, 가장 큰 특징은 정전영역의 확립과 곡림청(哭臨廳)영역의 형성이다. 이러한 특징은 1649년 인조의 국장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변화하여 숙종년간에는 하나의 형식을 유지하게 된다. 이를 시기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종25년 효경전(孝敬殿)을 문정전에 설치하면서 어재실의 위치 등을 논의하는 기록¹⁷⁾에 따르면, 문정전을 정전으로 사용하고 동편에 신문(神門)을 두고 신문 밖 광정문(光政門) 서편 행각에 어재실을 배치한다. 이는 인조 국장시 혼전의 모습과 유사한 형태이다. 따라서 중종 25년부터 1649년까지 문정전을 혼전의 정전으로 사용할 때 정전영역 및 어재실과 보조공간 배치는 『[仁祖]殯殿都監儀軌』에 기록된 혼전배치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종즉위년(1659)부터 점진적으로 조성소에서 담당하는 정전영역을 중심으로 형식을 갖추기 위한 변화가 모색된다.

<표 5>는 17세기 후반에 혼전 영역 변화를 시기별로 살펴본 것이다. 이 시기의 변화를 정전을 중심으로 하는 영역과 곡림청을 중심으로 하는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정전 영역의 확립

효종 즉위년에 조성된 인조의 혼전(영사전)은 정전과 정전 정면에 '정(丁)'자로 제물진설행각(祭物陳設行閣)이 조성되고, 문정문 내 남

[표 5] 17세기 후반 혼전 공간 개념도

시기	개념도
1649년 永思殿 인조혼전	
1659년 敬慕殿 효종혼전	
1674년 敬思殿 인선왕후	
1684년 永慕殿 명성왕후	

17) 『중종실록』 69권, 25년 8월 29일(병술)

행각에 수복별감방(守僕別監房)을 두고, 정전 후면에 건복문과 행각을 수리하여 사용하는 정도에서 정전 영역이 형성되었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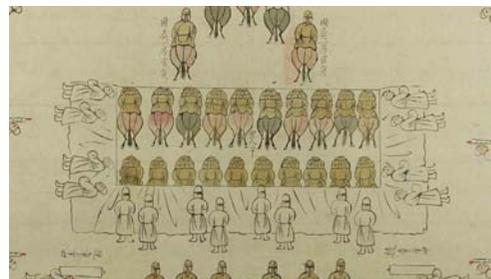
그러나 1659년 현종 즉위년에 효종의 혼전(경모전)을 형성하면서 정전 영역 내에 몇가지 공간이 추가 형성된다. 첫째는 정전 동월랑 3칸에 창호를 새로 달아 소대청(召對廳)을 형성한 것이다. 둘째는 정전 서쪽으로 통경문(通慶門) 옆 행각 2칸을 이용하여 제물진설처(祭物陳設處)를 마련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1683년에 명성왕후 혼전 조성 시 인선왕후 혼전과 같은 방식으로 조영되었으며, 정전 영역을 출입하는 신문(神門)과 건복문(建福門)에 청삼승갑장(靑三升甲張)을 달아 영역 구분을 확고히 하고, 정전 영역을 상징하게 된다.

(2) 곡림청 영역의 형성

정전 서북쪽에 곡림청(哭臨廳)이 설치되기 시작한 것은 1659년 효종의 혼전(경모전)을 조성한 시기부터이다. 이때 정전 서북쪽에 위치한 숭문당(崇文堂)을 곡림청으로 사용하고 이곳을 출입하는 통경문과 진상문(秦詳門)에 생포갑장(生布甲帳)¹⁹⁾을 달아 출입문 휘장으로 곡림청을 상징하기 시작했다. 또 정전과 맞닿아 있는 숭문당 남쪽 담장에 과자(把子)²⁰⁾를 설치하여 시선을 차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674년 인선왕후의 혼전 조성시에는 곡림청 영역이 확대된다. 숭문당을 곡림청으로 사용하고 숭문당 서쪽 함인정 마당에 감관나인(監官內人)을 위한 곡림청을 새롭게 조성하며, 환경전 남월랑과 이명문(離明門)내 행각에 23칸을 수리하여 내인입접처(內人入接處)로 사용하였다. 이때 함인정 마당에 조성하는 감관나인곡

림청은 오량가(五梁家) 5칸 규모로 조성한다. 오량가는 혼전기간동안 사용하는 임시공간이나, 기와를 올리고 바닥에 전돌을 까는 등 많은 공력을 들여 조영하였다.²¹⁾ 또한 곡림청 영역을 두르는 행각과 담장의 문에 생포갑장을 달아 공간을 상징하는데, 환경전 남월랑의 이명문과, 함인정 서쪽에 집서문(集瑞門), 숭문당과 문정전의 경계가 되는 진상문과 통경문이어에 해당한다. 이렇듯 사면에 휘장을 달아 곡림청 영역을 상징하는 모습은 국장행렬에서 참고해 볼 수 있다. <그림 4>은 효종 국장시 산릉으로 향하는 행렬을 그린 반차도 중에서 곡(哭)을 위한 궁인의 행렬부분이다. 행렬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이들 주변을 하얀 휘장을 둘러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곡림청 영역의 폐쇄적인 성격을 추측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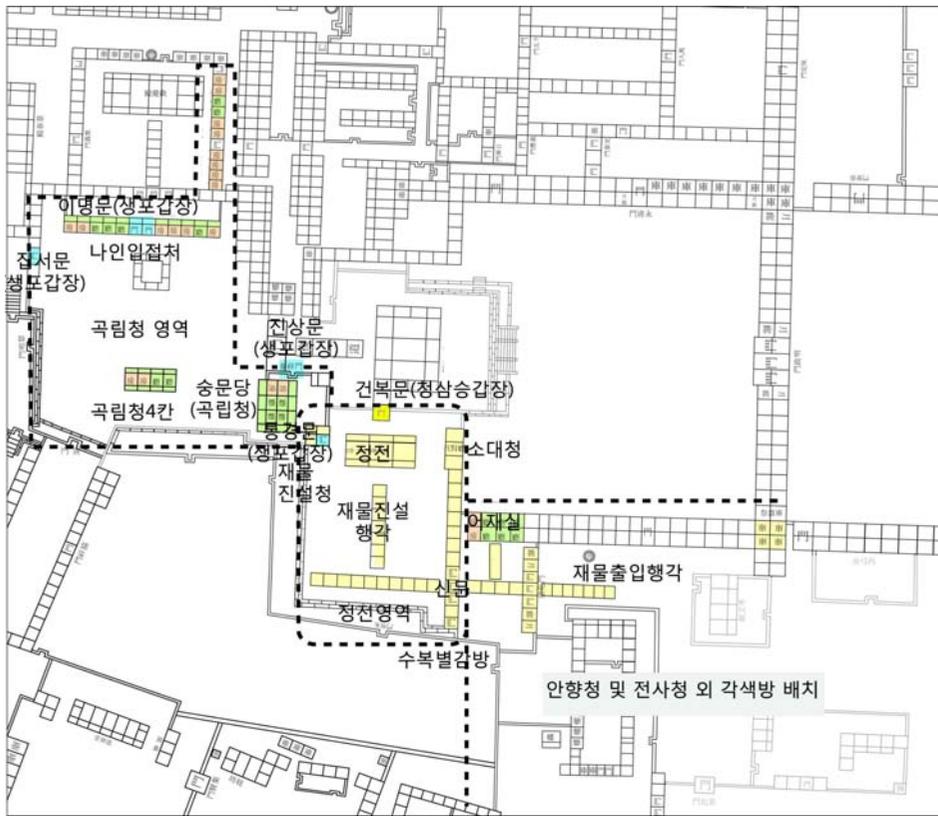


<그림 4> 『효종국장도감의례』, 「반차도」 중에서 宮人の 행렬

이렇게 조성된 곡림청 영역은 인선왕후 혼전 조성과 명성왕후 혼전 조성 시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점차 혼전조성에 새롭게 건물을 조성하는 방식보다 기존 건물을 이용하는 합리적인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함인정 남쪽 마당에 조성하던 감관나인곡림청은 새로 짓지 않게 된다. 따라서 1688년 장렬왕후 혼전과 1701년 인현왕후 혼전에서는 감

18) 『仁祖殯殿魂殿都監儀軌』 魂殿二房, 1649
 19) 생포갑장(生布甲帳): 생베(베를 잔 후 표백하지 않은 삼의 섬유질 그대로의 베)로 만든 휘장
 20) 과자(把子): 갈대 수수깡 씨리 등을 이용하여 발처럼 엮어 만든 가리개

21) 『[仁宣王后]魂殿都監儀軌』, 1674



<그림 5> 1684년 명성왕후 혼전 설치 시 배치상황(『동궐도형』을 기초로 작도하였으나, 환경전 주변 행각은 『명성왕후혼전도감의궤』에 따라 수정하였다.)

관나인곡림청과 나인입접처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며, 1720년 숙종 혼전 조성시 나인입접처가 함안각(咸安閣) 주변으로 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²⁾ 이는 인선왕후 혼전 조성 시 환경전 행각이 멀어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함인정 마당에 곡림청을 따로 조성하는 폐단을 없애고²³⁾, 합리적인 방식으로 승문당에서 가까운 함안각으로 옮겨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1659년에서 1684년 사이에 혼전 정전 영역이 확립되고, 1674년 곡림청 영역이 확립

되어 17세기 후반에 혼전은 성격에 따라 세 곳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첫째는 문정전을 중심으로 제물진설처와 제물진설행각, 소대청이 배치된 영역을 제례 중심영역으로 이를 출입하는 문은 건복문과 문정문(神門)이며, 두 문에는 청삼승갑장(靑三升甲張)²⁴⁾을 달아 공간을 구분하고 있다.

둘째는 정전 서북쪽 곡림청과 나인입접처 등이 배치되는데 이곳은 현재 함인정 남쪽 마당과 승문당을 포함한 영역이다. 사면에 담장과 행각으로 둘러있으며, 이명문(離明門), 진상문(秦祥門), 집서문(集瑞門), 통경문(通慶門)으

22) 『肅宗』魂殿都監儀軌, 1720
魂殿二房, 造成所 所掌

23) 『仁宣王后』魂殿都監儀軌, 1674
承傳, 甲寅 五月 十五日

24) 인현왕후 국장부터 흑삼승갑장(黑三升甲張)으로 바뀌 설치된다. 『仁顯王后』魂殿都監儀軌, 숙종27년(1701)

로 출입하며, 이곳에는 생포갑장(生布甲張)을 달았다.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은 수리소에서 담당하는 신문 밖 여재실을 포함하여 안향청과 전사청 및 각색방이 배치되는 혼전 보조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분화의 특징은 숙종년간 전반에 혼전 건축 형식으로 자리잡는다.

3-3. 정전과 곡립청 내부 공간

(1) 정전

정전은 정면3칸 측면3칸으로 구성된 내부공간과 정면 여간(御間)에 제물진설행각 7칸을 첨조(添造)하여 ‘정(丁)’자 형태를 취한다. 문정전은 이러한 3×3칸에 제물진설행각이 갖추어진 적절한 전각이었다. 반면 현종의 혼전이 조성된 환경전은 공간이 부족하여 전면에 3칸을 새로 조성하고 단청과 마루를 깔아 공간을 확장하고 제물진설행각을 새롭게 조성한 기록²⁵⁾을 볼 수 있다.

정전의 의장은 단청과 양상도회를 새롭게 하고 기단부 상면에 노점(蘆簾)²⁶⁾을 깔고 외부 사면에 갈대주렴(蘆簾)을 걸었다. 내부는 마루바닥²⁷⁾으로 마감하고, 중앙에 어담(御榻)과 당가(唐家)를 설치하며, 어담 위에 신탭(神榻)과 신좌방교의(神座方交倚)를 앞뒤로 설치하여 신주(神主)를 봉안한다. 그 앞으로 제상(祭牀)을 두고 제상 아래 목항(木杭)²⁸⁾을 배치한다.

25) 『[顯宗大王]殯殿都監儀軌』, 1674 魂殿二房, 造成所 所掌

26) 노점(蘆簾): 갈대를 엮어 만든 돛자리. 경기문화재단편, 『화성성역의궤건축용어집』, 경기문화재단, p.191,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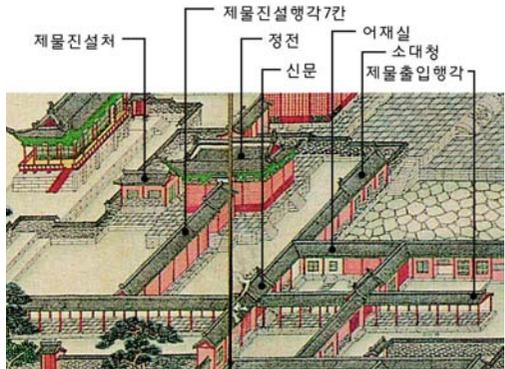
27) 현종의 혼전이 조성된 환경전에 첨조된 공간의 바닥에 마루를 깔았으며, 각 혼전도감에 나타나는 관지통(灌池桶)에 대한 기록에 내부가 마루로 마감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8) 목항(木杭)은 높이 5치 동서로 8자, 남북으로 7자 크기로 운족(雲足)을 조각하며, 소나무를 이용하여 만들었다. 어담 전면에 제상 아래에 배치한다. 목항의 용도

목항 앞 마루 중앙에는 관지통(灌池桶)²⁹⁾을 설치한다.

정전의 북벽에는 모란병풍을 배치하고, 당가 북벽 장지(障子)에는 오봉산병(五峯山屏)을 붙인다.

제물진설행각7칸에는 단청을 하고 좌우에 장지를 달며 내부에는 노점을 설치하고 정전에게 가까운 3칸에는 유둔(油菴)³⁰⁾과 만정(滿頂)³¹⁾을 설치한다. 「동궐도」에 그려진 문정전 앞 제물진설행각은 장지가 설치된 상태를 그리고 있으며 같은 그림에서 선정전 앞 제물진설행각과 비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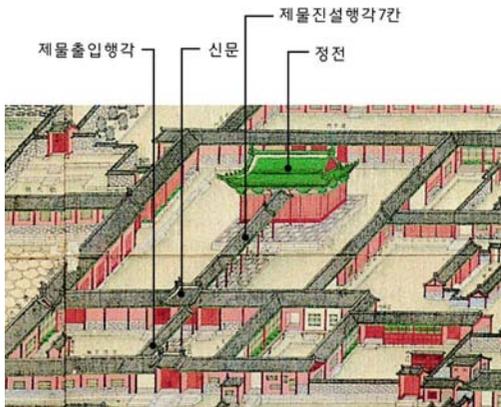
<그림 6> 정전 영역 각 공간(「동궐도」 일부)

는 확인할 수 없으며, 숙종9년 명성왕후 혼전부터 배설하지 않는다.

29) 관지통(灌池桶)은 목항 앞에 설치하며 마루를 뚫고 기와와 석회를 이용하여 마루바닥면에서 지면(地面)까지 사면을 둘러 가는 모래를 바닥에 깔아준다. 송관을 이용하여 덮개를 만들어 덮는다. 이것은 제례 시 헌관이 술을 붓는 곳이다.

30) 유둔(油菴) : 기름을 먹인 두꺼운 종이로 비를 막거나, 바닥에 깔아 습기를 막기 위해 사용한다. 경기문화재단편, 『화성성역의궤건축용어집』, 경기문화재단, p.301, 2007

31) 만정(滿頂): 상례에 사용되는 하안 휘장으로 천정에서 바닥까지 가려준다. 빈·혼전 조성과 산릉조성에서 사용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림 7> 선정전 앞 제물진설행각(「동궐도」 일부)

(2) 곡림청

곡림청 영역은 곡림청과 나인입접처³²⁾ 등을 포함한 공간이다. 문정전에 설치된 사례를 기준할 때 생포갑장을 두른 이명문(離明門), 진상문(秦祥門), 집서문(集瑞門), 통경문(通慶門)으로 둘러싼 공간에 설치되었다. 각 시기마다 설치 규모가 달라지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숙종대 문정전에 설치된 혼전 사례 중 곡림청 영역

시기	곡림청	나인입접처 (내곡청)	4문 회장
인선왕후 혼전	합인정 南庭 5량가, 송문당	이명문 內 월랑23칸	생포 갑장
명성왕후 혼전	합인정 南庭 5량가, 송문당	환경전 남월랑과 동월랑 이명문 內 월랑	생포 갑장
장경왕후 혼전	송문당	기록없음	생포 갑장
인현왕후 혼전	송문당	기록없음 ³³⁾	黑三升 甲帳

32) 나인입접처는 내곡청(內哭廳)이라 한다. 『[仁敬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숙종6년(1680) 魂殿二房, 稟目秩, 庚申十二月二十八日

33) 공간 조성에 대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으나, 나인입

상세한 공간 내부 배설은 명성왕후의 혼전을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다. 명성왕후 혼전설치 시 곡림청은 송문당과 합인정 남쪽 마당(南庭)에 오랑가 4칸을 신설하여 이용하였다.

송문당은 온돌2칸과 마루4칸으로 이루어졌으며, 동쪽과 서쪽에 퇴가 있다. 온돌2칸에는 백목선(白木筵)³⁴⁾을 두른 백문석지의(白文席紙衣)³⁵⁾를 깔고, 마루4칸에도 백목석을 두른 백문석지의를 깔았으며 백목만정(白木滿頂)³⁶⁾을 둘렀다. 동서남쪽을 둘러싼 퇴에는 초석지의(草席紙衣)³⁷⁾를 깔고 삼면에 완림(藪簾)을 달았다.



<그림 8> 송문당 평면

합인정 남쪽에 오랑가를 4칸 새로 조성하여 2칸은 온돌, 2칸은 마루로 하고, 전후에 퇴를 내었다. 이곳도 송문당과 마찬가지로 백목선을 두른 백문석지의를 깔았다.

접처에 자물쇠(鎖鑰)20부가 사용된 기록으로 보아 공간은 조성했으나, 특별한 수리기록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仁顯王后]殯殿都監儀軌』 숙종27년(1701) 魂殿造成所, 辛巳八月二十二日

34) 백목선(白木筵): 돛자리의 가장자리를 무명으로 하여 안선을 둘러 마감한 것

35) 백문석지의(白文席紙衣): 부들이나 곶풀을 이용하여 무늬없이 짠 돛자리를 여러개 이어붙여 만든 돛자리. 경기문화재단편, 『화성성역의궤건축용어집』, 경기문화재단, pp.192-193,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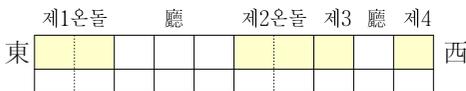
36) 백목만정(白木滿頂): 무명으로 만든 회장으로 천정에서 바닥까지 벽면 전체를 가려준다. 『화성성역의궤건축용어집』, 경기문화재단, p.193, 2007

37) 초석지의(草席紙衣): 짚으로 만든 돛자리를 여러개 이어붙여 만든 돛자리. 『화성성역의궤건축용어집』, 경기문화재단, pp.194-195, 2007



<그림 9> 함인정 南庭
5량가 평면

나인입점처로 사용된 공간은 환경전 남월랑과 동월랑, 이명문 내 월랑 등이 사용되었다. 각 월랑은 온돌과 퇴(退), 마루로 구성되었다. 남월랑에는 제1온돌부터 제4온돌까지 2칸 혹은 1칸으로 이루어졌으며, 온돌에는 백문석지의를 깔고, 온돌 앞에 내민 퇴와 마루에는 초석지의를 깔았다.



<그림 10> 환경전 남월랑



<그림 11> 환경전 동월랑

곡립청은 온돌과 마루로 구성되었다. 온돌에는 백문석지의를 깔고 방석(方席)과 등매(登每)³⁸⁾를 배설하였다. 지의와 방석, 등매 등 깔개는 모두 백목선을 두른 것을 사용한다. 마루에는 백목만정을 두르고, 바닥에는 백문석지의 혹은 초석지의를 깔았다. 곡립청 처마 끝 사면에는 완림과 같은 발을 달았다. 마루에 설치한 백목만정과 완림은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3-4. 신문 밖 혼전 보조 공간

혼전을 보조하는 공간은 어재실(御齋室), 안

38) 등매(登每)는 수를 놓은 자리와 초석(草席)을 합쳐 만든 곁자리임
『화성성역의궤건축용어집』, 경기문화재단, p.192, 2007

향청(安香廳), 전사청(典祀廳), 헌관방(獻官房) 이외에 제례음식을 담당하는 각색방(各色房) 등이 있다. 이들은 각 공간의 성격에 따라 신문 밖에 배치된 아문(衙門)을 임시로 사용하게 된다. 각 시기별 혼전도감의궤에 상세히 공간을 기록하고 있으나 위치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조선시대 창경궁을 살펴볼 수 있는 그림은 「동궐도」, 「동궐도형」이 있으나, 시기가 크게 차이가 있어 확인이 어렵다.

따라서 각 공간의 규모정도를 추정하고, 성격에 따라 위치를 추정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중 가장 명확하게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어재실이다. 어재실의 위치는 명정전 남월랑에 온돌2칸 마루6칸을 사용한다. 이는 중종 25년 문정전을 혼전으로 사용하기 시작할 때부터 지속되어온 것으로 생각된다³⁹⁾. 이는 평소 춘추관으로 사용된 곳이다.⁴⁰⁾ 어재실 이외에 세자재실, 왕자거려청 등이 배치될 때는 어재실 동쪽으로 명정전 남월랑에 온돌1칸 마루3칸 규모로 조성되기도 한다.⁴¹⁾

도충부에는 안향청과 헌관방이 배치되며, 빈청에는 전사청이 위치한다. 어재실 및 안향청과 헌관방, 전사청은 산릉에서 조성되는 제실영역에 속하는 곳으로, 신문(문정문) 가까운 곳에 배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혼전에 올리는 조석상식을 담당하는 수라간, 제물숙설청(祭物熟設廳), 당하설리(堂下薛里), 주방내관방(酒房內官房), 별사옹원(別司饔院), 반공방(餅工房), 반감방(飯監房), 주색방(酒色

39) 『중종실록』 69권, 25년 8월 29일(병술)

40) 『[明聖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숙종9년(1683년) 魂殿二房, 修理所 所掌
“御齋室 溫埃二間 抹樓六間 障子三間 雙窓二隻 分閣四隻 之閣二隻 前排仍用 御路及 左右簷階 方輦庫庫修補 南北庭磚石 修補 前後懸簾 四門設生布甲帳 設於春秋館”

41) 『[仁顯王后]魂殿都監儀軌』, 숙종27년(1701년) 魂殿二房, 修理所 所掌

[표 7] 혼전의 부속건물이 조성된 시설과 규모

관청	혼전관련 조성시설
춘추관 春秋館	어재실 온돌2칸, 마루6칸
도총부 都總部	안향청4칸, 초헌관 온돌2칸, 아헌관 온돌2칸, 종헌관 온돌2칸
빈청 賓廳	전사청 온돌1칸 량방(涼房)2칸 청사6칸 별사용원 빈청남쪽 마루
주서청 注書廳	수라간(水刺間):주서청 마루 제물숙설청(祭物熟設廳): 주서청 하인방 온돌1칸반 당하설리(堂下薛里)온돌1칸반 주방내관방(酒房內官房) 서온돌1칸반 병공방(餅工房), 별사용원(別司饗院): 문서간 온돌1칸반 반감방(飯監房), 주색방(酒色房) 동온돌1칸반
승정원 承政院	도설리방(都薛里房): 동온돌2칸 장번설리방(長番薛里房):서온돌2칸 포장간(泡匠間): 수공간(水工間) 온돌1칸, 부엌1칸반 다인각색장(多人各色掌) 등 량방2칸:하인청 업가(掩家): 승정원 대청 동편 상배색방(牀排色房), 증색방(蒸色房) : 서리방(書吏房) 南第一間 涼房一間 은기성상방(銀器城上房), 고성상방(庫城上房): 書吏房 南第二間 涼房一間
홍문관 弘文館	입번총의관방 책방 온돌1칸 청사2칸 입번총실방: 동온돌2칸 참방방: 서온돌2칸 전리방(奠吏房): 사령방(使令房)
대간청 臺諫廳	감찰방 온돌1칸, 마루2칸

房) 등은 주서청(注書廳)에 설치되었다.

임금에게 음식을 올리는 설리(薛里)와 임금의 은그릇을 관리하는 은기성상방(銀器城上房) 및 다인각색방 등은 승정원에 배치되었다.

승정원과 주서청에 배치된 공간은 혼전에 올리는 음식과 연관되며, 승정원과 승정원의 기록을 담당한 주서청은 업무의 연관성에 따라 인접공간일 가능성이 있다.

혼전에 번(番)을 돌아 입직하는 입번총의관(入番忠義官)과 입번종실(入番宗室)의 처소는 홍문관(弘文館)에 배치하며, 감찰방(監察房)은 대간청(臺諫廳)에 배치하였다.

이와같이 혼전의 부속공간은 각 아문에 성격에 따라 공간을 구분하여 배치하고 있으며, 이를 <표7>에서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3-4. 혼전기간 이후 유지공간

숙종년간에는 혼전의 기간이 끝나고 종묘에 부묘되지 못하고 숙종의 부묘시까지 기다린 왕비의 혼전이 인경왕후와 인현왕후 2곳이 운영되었다. 이 경우 혼전으로 사용되었던 영역 중에서 삼년상 동안 필요한 공간인 곡립청 영역과, 조식상식을 준비하는 영역 등은 정리하고, 정전영역을 포함하여, 어재실과 안향청, 전사청 수라간, 수복별감방 등이 남겨진다. 이는 산릉에서 삼년상 동안 가제실(假齋室)이 운영되었다가 철거되고, 재실에 안향청과 전사청을 배치하고 능력에 수라간과 수복방을 두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생각할 수 있다. 42) 숙종38년에 영소전을 수리하도록 하는 기록을 통해서도 남겨진 영역을 추론할 수 있다.43)

<그림 12>는 혼전기간 이후 종묘 부묘 시까지 유지된 혼전의 공간을 문정전의 배치에 맞추어 그린 개념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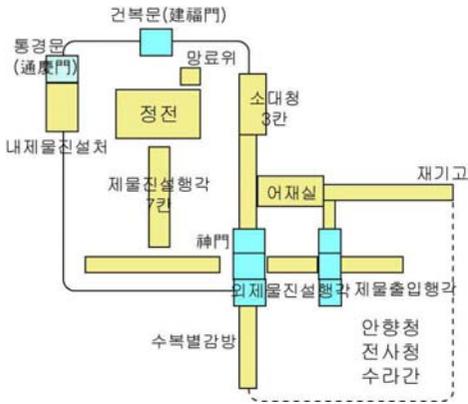
경녕전(인현왕후의 혼전)이 기년상을 치른 15개월 이후(1702년)에도 종묘 부묘 시까지(1722년) 문정전에 지속되었다. 이때 인현왕후의 신주를 모시기 위해 유지된 공간을 영소전 수리

42) 정정남, 「조선시대 산릉의 가제실과 재실의 운영」,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pp.107-112, 2008

43) 『승정원일기』, 숙종38년 6월 17일
“禮曹啓曰 臣李大成 進詣永昭殿奉審 則正殿東邊簷下二處 西邊衝椽蓋板一處滲漏 殿後面夫芳草一立剝落 中排設廳及左右行閣玄明門紫極門武德門安香廳典祀廳諸處滲漏齋室廚間椽木七箇 腐傷破落 果如本殿參奉所報 而即今雨勢如此 姑待少晴 擇日舉行 何如 傳曰允”

44 논문

기록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 문정전을 중심으로 한 정전영역과 신문(문정문)밖 어재실과 수복별감방, 안향청과 전사청, 수라간 등이 유지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어재실이 설치된 춘추관, 안향청과 헌관방이 설치된 도총부, 전사청이 설치된 빈청, 수라간이 설치된 주서청 일부가 아문의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혼전으로 유지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2> 혼전 기간 이후 중요 부모 시까지 유지된 혼전 공간 개념도

4. 혼전사용에 따른 문정전과 그 주변 전각의 사용 변화

17세기 후반에 들면서 창경궁의 편전인 문정전을 혼전으로 전용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숙종년간에는 문정전을 혼전의 주 정전으로 사용하는 성격이 뚜렷해진다. 이는 문정전의 성격뿐 아니라 주변 전각에도 영향을 주었다.

4-1. 문정전의 편전 기능 약화

(1) 문정전의 혼전 사용기간

문정전은 중종25년 정현왕후(貞顯王后-성종비:孝敬殿)의 혼전으로 사용되었다. 44) 이후로

경사전(景思殿: 중종혼전, 1544), 경모전(敬慕殿: 인순왕후혼전-명종비, 1575), 효모전(孝慕殿: 인성왕후혼전-인종, 1577)으로 사용되었으며, 17세 후반에 이르면 문정전을 혼전 주 정전으로 사용하기에 이른다.

[표 8] 문정전을 혼전으로 사용한 사례

시기	혼전명	대상
1530년 중종25	孝敬殿	성종비 정현왕후
1544년 인종즉	景思殿	중종
1575년 선조8	敬慕殿	명종비 仁順王后
1577년 선조10	孝慕殿	인종비 仁聖王后
1649년 효종즉	永思殿	인조
1659년 현종즉	敬慕殿	효종
1674년 현종15	敬思殿	효종비 인선왕후
1675년 숙종11월13일 이후	孝敬殿	현종
1683년 숙종9	永慕殿	현종비 명성왕후
1688년 숙종14	孝思殿	인조비 장렬왕후
1701년 숙종27	敬寧殿	숙종비 인현왕후
1720년 경종즉	孝寧殿	숙종
1724년 영조즉	敬昭殿	경종
1730년 영조6	敬徽殿	경종비 선의왕후
1757년 영조33	徽寧殿	영조비
1757년 영조33	孝昭殿	숙종비
1805년 순조5	孝安殿	영조비 정순왕후
1843년 헌종9	徽定殿	헌종비 효현왕후
1860년 철종11	孝正殿	순조비 순원왕후
1878년 고종15	孝徽殿	철종비 철인왕후

숙종년간에는 즉위년에 인선왕후(효종비) 혼전을 시작으로 명성왕후, 장렬왕후의 혼전이 이곳에 설치되었으며, 숙종27년 이후 인현왕후의 혼전이 계속 유지되어 숙종의 혼전이 설치될 때까지 이른다. 19세기 고종대까지 문정전이 지속적으로 혼전으로 사용하게 되며, 숙종 이

44) 『中宗實錄』 69권, 중종25년 8월 24일(신사)

후 문정전의 성격이 혼전의 주 정전으로 특징지어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2) 문정전의 편전 사용 사례

문정전은 성종년간에 창경궁 조성시 창경궁의 편전으로 조성되었다. 편전은 임금이 신하들과 정례적으로 예를 행하는 상참(常參)의식과 경연(經筵)을 통해 신하들과 경서를 강론(講論)하고,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여 정사를 논하는 곳이다.⁴⁵⁾ 그러나 조선시대 전반에 편전으로 사용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표 9>은 문정전의 사용 경향을 파악한 것으로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표 9] 문정전 사용 성향

	혼전	편전	건축	연회
연산				2
중종	4			1
인종	1			
명종		1		
선조	1	10		
광해			15	
인조		21(50)		
효종	0(3)	-(-)		
현종	1(2)	-(-)		
숙종	9(21)	-(-)		
경종	-(-)	-(-)	-	-
영조	5(29)	2(4)		
정조	2(4)	-(-)		
순조	3(-)	-(-)		

* 편전기능: 召對·講·引見·親鞫

* 숫자 표시: 조선왕조실록 기사 수(승정원 기사 수)

* 본 표에 기록된 숫자는 단지 기사의 수이기 때문에 실제 실행건수와는 차이가 있다.

문정전이 편전으로 사용된 사례는 선조년간과 인조년간이다. 인조년간은 이괄의 난으로

인해 창덕궁의 편전인 선정전이 소실된 상황에서 사용된 것이다. 따라서 조선전기에 문정전은 편전으로 활발히 사용하지 못했다.

17세기 후반에 들어 문정전은 혼전으로 자주 이용되면서 점차 혼전의 기능을 담당하는 전각으로 사용되었다. 효종 이후 문정전에 대한 기록은 편전 사용사례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대신 혼전에 대한 기록은 뚜렷하게 반복되어 나타났다. 특히 숙종년간의 혼전 사용기록은 자주 나타나며, 문정전을 혼전의 주 전각으로 사용한 시기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선전기에 활용이 명확하지 않았던 문정전이 조선후기에 들어서면서 혼전의 정전으로 자리잡게 된다.

(3) 문정전 영역의 혼전 건물 상설화

문정전 주변 행각에 임시 설치되었던 혼전 관련 시설들이 점차 철거되지 않고 상설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 사례로 제물출입행각과 소대청, 제물진설청 등이 있다.

송화문 밖 제물출입을 위한 행각 7칸을 인조 혼전 조성시부터 인선왕후 혼전 조성까지는 새로 조성한다. 그러나 숙종대 이후 상설되어 수보(修補)하여 사용한다.

소대청(召對廳)은 정전 동쪽 월랑에 3칸으로 조성되는데, 효종 혼전과 인선왕후 혼전 조성시까지의 월랑에 창호 등을 새롭게 달고, 도배 및 칠, 단청 등을 모두 새로 하는 것으로 보아 혼전 사용 시 임시로 조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숙종 9년 명성왕후 혼전 조성시부터 인선왕후 혼전 시 조성된 소대청을 그대로 유지하고, 도배를 새롭게 하는 정도에서 수리가 이루어진다.

통경문 옆 제물진설청에도 창호를 새롭게 달고 단청 등의 수리가 이루어졌으나, 숙종 9년 명성왕후 혼전 조성시부터 상설된 공간에 도배를 새롭게 하는 정도에서 수리가 이루어진

45) 김동욱, 「조선시대 창덕궁 회정당의 편전 전용에 대하여」, 건축역사연구 제3권 1호, 1994
조재모, 「조선시대 궁궐의 의례운영과 건축형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46 논문

다.

따라서 초기에는 임시공간으로 구성한 것을 점차 상설공간으로 인식하고 혼전 사용 이후에도 혼전 시 설치된 시설을 철거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4-2. 송화문 밖 각사 건물의 이전

숙종대에 기록된 혼전도감의례를 바탕으로 문정문 밖 각 아문은 춘추관, 도총부, 빈청, 주서청, 승정원, 홍문관, 대간청 등이 위치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경종 즉위년 숙종 혼전을 조성할 때 이곳의 상황이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어제실이 위치한 춘추관의 경우 명정전 남월랑으로 기록되며, 구도총부, 구승정원, 구홍문관 등으로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⁴⁶⁾ 영조 33년(1757) 인원왕후 혼전도감의 수리소 기록에 따르면 안향청과 현관방이 위종사에 배치되었다.

숙종대에 배치되었던 각 아문은 춘추관과 주서청과 같이 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을 기록하는 사관이 머무는 공간이 위치하였으며, 승정원과 홍문관은 왕명을 출납하거나, 학문을 연구하는 편전 기능과 연관된 기관이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계속된 혼전 사용으로 문정전의 편전기능이 약화되고, 어제실과 같은 공간이 상설됨으로서 춘추관이 이접(移接)하고, 승정원, 홍문관, 주서청 등이 옮겨간다. 이후에는 위종사, 궁방, 승문원 등이 배치되어 성격이 변화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숙종년간에 자주 문정전에 혼전이 설치되었으며,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경녕전이 문정전에 오랜기간(1702년~1720년) 유지되면서 일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3-4장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혼전기간 이후에 종묘에 바로 부모되지 않은 왕후의 신주를 봉안하기 위해

46) 『肅宗魂殿都監儀軌』, 1720년 경종1년 魂殿二房, 修理所 所掌

혼전을 지속하게 되는데 이때 문정전 주변행각 외에도 어제실 안향청 전사청 등이 있던 춘추관, 도총부, 빈청, 주서청 등이 그 기능을 회복하지 못한다.

[표 10] 숙종대 이후 문정문 밖 각 아문의 변화

혼전 부속시설	숙종대	경종 즉위이후	영조33년이후
어제실	춘추관	명정전 남월랑	명정전 남월랑
안향청, 현관방	도총부	舊도총부	위종사 (衛從司) 궁방(弓房)*
전사청	빈청	빈청	舊빈청
제사음식 관련	주서청	주서청	舊빈청 승문원*
설리방 및 각색장, 은기성상방	승정원	舊승정원	舊빈청 승문원*
입번층의, 입번종실방	홍문관	舊홍문관	승문원*
감찰방	대간청	대간청	위종사 (衛從司)

*표는 영조33년 인경왕후와 정성왕후의 혼전이 창경궁 부속시설이 유사영역 안에 함께 치하여 함께 기록한 것이다.

4-3. 문정전 주변 전각의 혼전 기간 사용사례

승문당과 함인정에 이르는 영역까지 곡림정으로 사용됨으로 이 기간동안 혼전의 성격으로 사용상 변화를 가졌다. 이외에도 창경궁의 정전인 명정전이 문정전을 혼전으로 사용하는 기간동안 혼전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사례가 나타난다.

첫째는 재궁을 산릉에 봉안하고 우주를 받들고 궁궐에 돌아오는 반우(返虞)시에 이를 맞이하는 의례가 명정전에서 거행된다.⁴⁷⁾

47) 『[明聖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1683

魂殿都監儀軌, 啓辭秩, 甲子三月初六日

“一取考騰錄 則返虞習儀時 靈座幄次設 於正殿前階上 南向 御幕次設 於明政殿南庭北向 而虞主奉安習儀節次 則國葬都監專掌次知舉行 而本都監段 只爲檢飭排設是跡... (후략)”

두 번째는 국상이 일어나면 청나라로부터 사신이 방문하여 칙서를 내리고, 치제(致祭)를 거행하는데, 보통 칙서는 인정전에서 받고 치제는 명정전에서 이루어졌다.⁴⁸⁾

세 번째는 혼전 이안시 명정전에서 지영례(祇迎禮)를 행하고 잠시 명정전에 안치한 후 문정전에 이안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는 숙종 즉위년부터 확인된다.⁴⁹⁾

또한 혼전의례와 관계되어 사용되는 사례 이외에 혼전과 밀접하게 가까이 있어 정전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나타난다.

숙종 11년에 명정전에서 전경문신(專經文臣)의 전강(殿講)을 행해야 했으나, 영모전(명성왕후의 혼전) 가까이 있어 소란할 우려가 있어 이를 인정전으로 옮겨 실행하는 사례가 발생한다.⁵⁰⁾

이외에도 숙종 11년에 명정전으로 정해진 배표(拜表-임금이 중국황제로부터 외교문서를 받는 일)처를 인정전으로 옮기고,⁵¹⁾ 같은 해

11월에는 영칙의 처소를 명정전에서 인정전으로 바꾼다.⁵²⁾ 이들 모두 영모전에 소란을 끼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 등을 통해 혼전의 정전에서 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행사 혹은 혼전으로 들어 서기 전에 치루어야 하는 의례 등을 명정전에서 거행했으며, 명정전의 기능 중에서 혼전 기간 중에 혼전을 배려하여 인정전 등으로 옮겨 실행하는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문정전이 혼전으로 사용되는 동안은 주변 전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조선후기 혼전운영 방식의 확립이 숙종년간에 이루어졌다는 전제로, 인조의 국장이 일어난 효종년간부터 숙종년간까지의 빈·혼전도감의례를 통해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의 혼전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숙종년간에 조성된 혼전의 공간을 세밀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1) 1659년 효종의 혼전 조성시부터 1684년 명성왕후 혼전 조성 사이에 혼전의 공간이 조직화되었으며, 이는 숙종대에 문정전을 중심으로 혼전 공간구성의 전형을 이루었다. 이 시기 형성된 혼전 공간은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정전을 중심으로 한 제례 영역과 둘째는 정전 서북쪽에 곡림청 영역, 셋째는 동남쪽에 어재실을 비롯한 안향청 및 혼전 보조공간이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정전 서북쪽에 형성된 곡림청 영역을 별도로 구분지어 공간을 규정하고 나인입접처와 나인곡림청

尤 ”

52) 『승정원일기』, 숙종 11년 11월 7일 (계해)
“政院啓曰 今此出來勅迎勅處所 當設於明政殿 而與永慕殿相近 不無難使之端 移設仁政殿之意 敢啓 答曰 知道”

『승정원일기』, 숙종 즉위년/12월/04일(계사)

“政院啓曰 昨日返虞習儀時 大駕入明政殿庭幕次後 解嚴一款 通禮不爲啓請 再三催促 則徑先出去云 事甚可駭 當該通禮 推考何如 傳曰 允”

『승정원일기』, 숙종 10년 6월 8일 (임인)

“都監啓曰 勅使弔祭處所 必先定奪 然後祭物 當爲熟設於便近之處 取考甲寅曆錄 則受勅於仁政殿 弔祭於明政殿 熟設處所 則昌慶宮內兵曹 設行矣 今亦依此例爲之乎 敢稟 傳曰 依爲之 迎接都監監錄 ”

48) 『승정원일기』, 숙종 즉위년/08월/26일(정사)

“備邊司郎廳 以三公意啓曰 今日勅使致祭於明政殿時 諸執事已爲先四拜就位之後 百官以次就位 厭其久立 一時列坐 此實曾所未有之事 所見可駭...(후략)”

49) 『승정원일기』, 숙종 원년/11월/12일(병신)

“傳于鄭樸曰 孝敬殿 權安於明政殿 移安於文政殿時 由正門奉安事 分付”

50) 『승정원일기』, 숙종 11년 6월 15일 (갑진)

“政院啓曰 今十一日 專經文臣殿講事 命下矣 殿講處所 當設於明政殿 而與永慕殿偏近 恐有喧聒之弊 依前日儒生殿講例 移設於仁政殿事 分付 何如 傳曰 允”

51) 『승정원일기』, 숙종 11년 10월 29일 (병진)

“政院啓曰 今此拜表處所 當設於明政殿 而與永慕殿 甚爲逼近 百官行禮之時 似有喧聒之患 從前文臣殿講及儒生殿講 皆移設於仁政殿 今亦依前移設之意 分付, 何如 傳曰

등 곡립청 영역을 확립한 것이다. 또 정전 주변으로 소대청과 제물진설처 등이 조성되어 정전 영역이 좀더 조직화 되었으며, 이 공간구성은 조선후기까지 영향을 준다.

2) 문정전에 혼전이 조성될 당시의 모습을 명성왕후 혼전 조성을 기준으로 상세히 살펴본다. 혼전의 의례가 행해지는 문정전 주변의 서북쪽으로 환경전 동서월랑과 함인정, 송문당까지 혼전 기능이 배치되었으며, 문정문 동남쪽으로 각 아문에 혼전보조공간이 배치되었다.

의례가 행해지는 정전은 단청과 양상도회를 새로하고, 내부에 모란병풍과 오봉병 등을 배설하고 청목선을 두른 주렴을 사용하는 등 색채를 사용하여 제례공간으로 위상을 갖춘다. 반면, 이외의 공간에는 백목선을 두른 깔개를 사용하고 생포갑장, 백목만정 등 색채를 억제하여 상례공간의 특징을 보인다. 또한 정전과 곡립청 외부에 주렴과 같은 가리개를 달거나, 공간을 경계하는 각 문에 휘장 등을 달아 내부공간을 여러차례 시선을 차단하여 영역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국상(國喪)이라는 의례의 성격을 표현하였다.

3) 문정전은 창경궁의 편전으로 건축되었으나, 조선시대 전반에 활발하게 사용되지 못했다. 그러나 숙종대 창경궁의 문정전을 혼전으로 장기간 이용하면서, 혼전의 성격이 뚜렷해졌다. 이에따라 혼전 사용시 문정전 영역에 임시 조성하던 공간들이 상설화되고, 동남쪽에 배치되었던 각사가 이전하였다. 또 문정전 주변에 송문당과 함인정 마당은 곡립청 영역으로 사용되었고, 창경궁의 정전인 명정전의 활용에도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문정전이 혼전으로 성격이 변화되어 문정전 뿐 아니라 주변 공간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1. 『승정원일기』
2. 『조선왕조실록』
3. 『[仁祖]殯殿都監儀軌』, 1649년
4. 『[孝宗]殯殿都監儀軌』, 1659년
5. 『[仁宣王后]魂殿都監儀軌』, 1674년
6. 『[顯宗大王]殯殿都監儀軌』, 1674년
7. 『[仁敬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1680년
8. 『[明聖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1683년
9. 『[莊烈王后]魂殿都監儀軌』, 1688년
10. 『仁顯王后魂殿都監儀軌』, 1701년
11. 『肅宗魂殿都監儀軌』, 1720년
12. 『景宗魂殿都監儀軌』, 1724년
13. 『[宣懿王后]魂殿都監儀軌』, 1730년
14. 『[貞聖王后]魂殿都監儀軌』, 1757년
15. 『[仁元王后]魂殿都監儀軌』, 1757년
16. 『[正宗大王]殯殿魂殿都監儀軌』, 1800년
17. 김동욱, 「조선시대 창덕궁 회정당의 편전 전용에 대하여」, 건축역사연구 제3권 1호, 1994년
18. 정종수, 「조선초기 상장의례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년
19. 정정남, 「조선시대 산릉의 가재실과 재실의 운영」,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8년
20. 정유미, 「조선시대 궁궐의 상·장례공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년
21. 조재모, 「조선시대 궁궐의 의례운영과 건축형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년
22. 조옥연, 「조선 궁궐의 동조건축에 관한 연구-17~18세기 동궐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년
23. 윤정, 「조선시대 혼전운영에 대한 기초적 정리」, 『규장각』 제28호, 2005년 12월 접수(2009. 12. 15)
수정(1차: 2010. 5. 2, 2차: 2010. 5. 23)
게재확정(2010. 5. 28)

The Study on the Character and Formation of the Honjeon during the Reign of Sukjong in Joseon Dynasty

- Centering on Munjeongjeon in ChangkyeongGung -

Shin, Ji Hye

(Ph.D Student, Graduate school of Kyonggi Univ.)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look into management and architectural space composition of Honjeon during the reign of Sukjong. Also it purposes to inspect how to affect management of the Royal Palace.

The study is based on each Binjeon · Honjeon Dogam Eugwe between late 17C and 18C. And the data on management of the Royal Palace is based on Joseonwangjosillok and Seungjeongwon Ilgi.

Because Sukjong used ChangDeokgung and GyeongDeokgung alternately, Honjeon located at Munjeongjeon of ChangGyeonggung during Sukjong stayed at ChangDeokgung and located at Gyesangdang of GyeongDeokgung during Sukjong stayed at GyeongDeokgung.

At that time, often movement of the King modified procedure of moving Honjeon. Between the first year of Hyenjong and the 9th year of Sukjong, architectural space of Honjeon was settled. In 1659, territory of Jeongjeon was settled. Also between 1674 and 1684, Goklimcheong was built. Construction of Goklimcheong is noticeable character.

As Munjeongjeon was being used as Honjeon continually, it was recognized as Honjeon. Due to its long utilization as Honjeon, several government offices were transferred. Also it influenced utilization of Myeongjeongjeon.

Keywords : Sukjong, Honjeon, Munjeongjeon, Gyesangdang, Kukjang(National funeral),
Changgyeonggung, Gyeongdeokgung
